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 일관성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 공공성·수익성·투명성 등 협상 3대 원칙 제시 2년간 협상 통한 합의안 무의미...4월 토지보상 앞두고 또 행정절차 지연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번 조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한 고분양가와 80평형대 대형 평수, 용적률 확대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이미 해당 부서 등에서 2년여 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결정한 내용인데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검토·논의하기로 한 사항들이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행정절차가 지연될 경우 땅값 추가 상승 등에 따른 개발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을 보장하는가(수익성), 사심이나 부적절한 개입 없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가(투명성)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히 "법령상 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비공원 면적을 30%까지 할당할 수 있지만, 중앙공원 1지구(8.17%) 등 광주 9개 민간공원 평균은 9.7%로 20%가 넘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원 면적이 좁다 보니 용적률, 층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일정 이상 수익을 내면 공원 사업에 환원하도록 협약해 특혜란 있을 수 없다"며 "분양가를 낮추면 입주자에게만 좋고, 다소 높더라도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면 150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무조건 낮추고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5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공직자가 참여하는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정서와 공감"이라며 "분양가, 용적률 문제를 비롯해 80평 이상 대형 평수를 줄이고 서민들이 선호하는 평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협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면적을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는가(공공성),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적정 수익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테니 자칫 지나친 논쟁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위기를 맞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이 이날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빚고를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 내 갈등이 단초가 됐다. 광주시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빚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4차례 계획 변경을 통해 평당 1900만원, 후분양으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 중앙공원은 부지 면적만 302만8000여㎡로, 서구 금호동, 쌍촌동, 풍암동, 화정동 등을 걸치고 있다. 광주시는 91.8% 면적에 다양한 휴식시설을 갖춘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8.2% 공간에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SPC 최대 주주인 한양이 선분양을 조건으로 1600만원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한양 측은 최근 제시안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정 내부에선 한양측이 SPC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대표성이 없어 협상자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접촉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한양 등을 중심으로 고분양가와 대형 평수 논란 등이 제기된 만큼 내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란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재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이날 발언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절차마저 사실상 연기되면서, 지난 2년여간 업체측과 줄다리기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 낸 광주시 관련 부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시정 내부 일각에선 "결국 공무원들이 2년간 일한 결과물을 받지 못하

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 2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차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오해 없도록 심사숙고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동료(공무원)들이 마치 뭔가를 잘못한 듯한 분위기로 내몰리는 듯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

광주시, 백운광장 등 15곳 2025년까지 1조7천억원 투입 울 거점시설 등 85개소 착공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체제된 구 도심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7년 3곳, 2018년 5곳, 2019년 4곳, 2020년 3곳이 선정돼 총 15개 사업장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입해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국비 346억원을 포함 2020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주민 공유공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시는 우선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부지매입, 설계, 준공 등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개소 뉴딜사업지 196개 단위사업 중 85개 시설 사업이 올해 착공하며, 73개 사업은 올 연말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림동은 문화복합 교류공간으로 '청년창작소', 동명동은 청년복합지원공간으로 '동명하우스', 원도산은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을 위한 '도루메 어울림 플랫폼', 농성동은 마을커뮤니티센터로 '벚꽃어울림센터', 임동은 공동이용시설로 '버드리 어울림센터'가 뉴딜사업 대표 거점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CCTV 설치 등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 노후된 골목 바닥을 정비하고, 벽화사업을 통해 마을을 디자인하는 하는 사업들도 곳곳에서 완료되고 있다.

올해는 불법주정차 및 거리환경 정비를 위해 436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보안등 31개소가 설치된다. CCTV 및 무인택배함 등이 17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북구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인 북구 중흥동 공유주차장 조성사업은 북구청 주변

효죽공유주차장 인근 3530㎡ 부지에 53여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200여면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백운동 일대는 남구정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전남대 대학타운 일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IOT)을 접목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스마트 공유주차를 본격화 한다.

이와 함께 집수리 지원 사업은 양림동, 사직동, 농성동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실사와 선정위원 심사를 통해 가구를 선정하고 노후 주택의 외부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체 뉴딜사업지에서 노후주택 622가구를 정비한다.

임찬혁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올해는 거점시설 등이 다수 준공되고 체감도 높은 사업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로 각 사업별로 성공모델을 만들어 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사업변화 기록과 모니터링, 성공모델 발굴과 공유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가족·어르신 친화형 '파크골프장' 대폭 확충

전남도가 도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가족 및 어르신 친화형 파크골프장을 대폭 확충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발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단위, 3세대, 어르신, 소외계층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현재 23개소인 파크골프장을 오는 2025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조성한다.

전남도는 각 시·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도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파크골프장이 없는 시·군에서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선다.

균특회계로 체육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비(균특) 30%를 제외한 7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이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민 대상 '가족화합 파크골프 주말교실'을 운영해 파크골프의 저변을 확대하고 가족·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8명 공개 모집

전남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유아들에게 우리 옛 이야기를 들려 줄 '제13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공개모집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여성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국비 사업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전국 지자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18명을 선발하며, 이미 선발된 인원이 충분하거나 사업수요가 부족한 8개 시·군

(곡성, 나주, 담양, 목포, 무안, 신안, 여수, 함평)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력, 경력사항 등 특별한 자격 요건없이 만 56세에서 74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어르신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www.storymama.kr)에서 내용을 확인 후 2월 22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storymama@koreastudy.or.kr)로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고흥군의 미래 1.3.0 프로젝트

예산
예산규모 7,020억원
↓
1조원

개인소득
1인당 GRDP 2,020만원
↓
3,000만원

인구
인구감소율 1.4%
↓
0 Zero